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국제거시금융실

<p>I.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p> <p>1. 글로벌 금융위기 배경</p> <p>2.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p> <p>II. 국제금융시장 전망</p> <p>1. 외환시장</p>	<p>2. 국제금리</p> <p>3. 국제유가</p> <p>III. 국제금융질서 재편 전망</p> <p>1.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방향</p> <p>2. 우리나라의 대응전략</p>
---	---

주요내용

- ▶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 주택시장의 향방이 금융위기의 향후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주택경기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주택경기선행지수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재고도 감소하고 있어 가격하락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9년 3분기부터는 주택경기의 점진적인 상승세 시현이 예상됨.
 - 기존주택 차압이 정점에 달하는 2009년 상반기 이후 주택판매가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말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외환시장에서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유출 기조가 다소 진정되면서 통화가치 절하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 금년도 실질실효환율이 2000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이탈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금년도 평균환율이 1,1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200원대, 하반기에는 1,000원대의 평균환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금리는 2008년에 세계적으로 정책금리의 대폭적 인하가 단행되었으며 2009년에도 인상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는 각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조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
- ▶ 유가의 경우 2009년 중 두바이 유가는 상반기에 배럴당 40달러대, 하반기에는 배럴당 5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에 시현된 국제유가의 급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달러화 강세가 그 중요한 요인이며, 2009년에도 이러한 요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감산 결정은 유가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하반기에는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신흥시장국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 주관국의 하나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재편이 진행되는 2008년 말에서 2011년까지 G-20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 재편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흥시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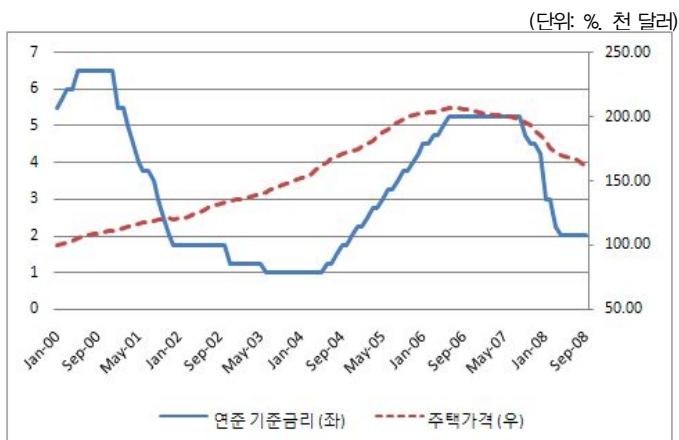
I.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배경

■ 미국의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모기지론의 과도한 증권화, 금융감독 미흡으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됨.

-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자산/자본 비율은 2003년 21배에서 2007년 28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주택가격은 38% 상승함.

그림 1-1. 미국 금리 및 주택가격



자료: Standard & Poors, Federal Reserve Board.

■ 하지만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정주택대출금리(FRM)가 변동금리(ARM)로 전환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 개인대출자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함.

- 2008년 9월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은 전고점 대비 21.8%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연체율도 20% 이상으로 급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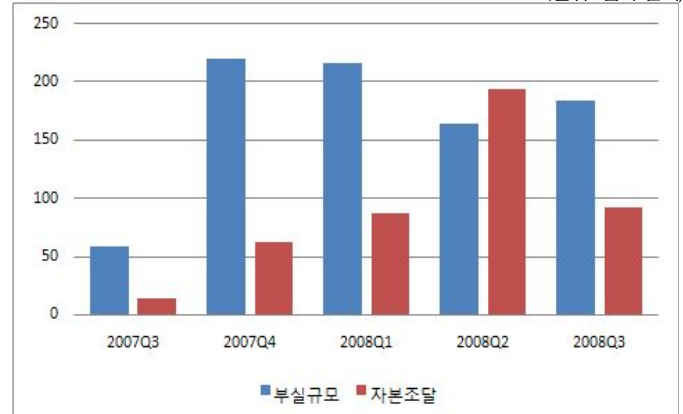
■ 이러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증권화상품의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됨.

- 주택가격 하락 → 대출 연체율 증가 → 서브프라임시장 손실 확대 → 증권화상품 손실 확대 → 금융기관 손실 확대 → 신용경색 → 주택가격 하락 → 대출 연체율 증가 → 손실 확대와 같은 경로를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크게 늘어남.

- 2007년 4분기~2008년 3분기 동안 전 세계 금융기관의 부실규모 총액은 7,855억 달러에 달함.

그림 1-2. 세계 금융기관 부실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

■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이후 불안심리 및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됨.

-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 모두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함.

- 국제적 신용경색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각국의 금리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됨.

2.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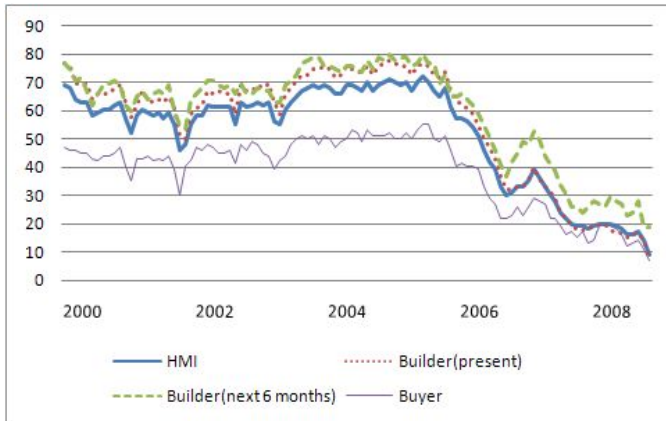
■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된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고정금리 모기지의 변동금리 전환에 따른 연체율 급증이 모기지 시장의 과도한 증권화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신용경색을 유발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기 위해선 미국 주택경기 회복이 필수적임.

■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는 다소 안정될 것이나 금융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는 2009년까지 이어질 것임.

- 미국의 주택시장신뢰지수(HMI)는 2005년 6월 7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11월 역대 최저치인 9를 기록했으며, 주택 건설 및 구매심리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그림 1-3. 미국 주택시장 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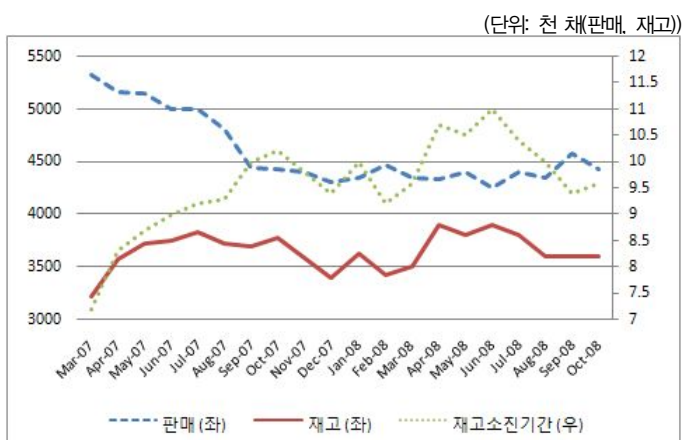


주: HMI(Housing Market Index)는 주택공급자 및 수요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뢰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50이상은 낙관적, 50미만은 비관적 상황을 의미함.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 다만 주택경기선행지수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재고도 감소하고 있어 가격하락세의 둔화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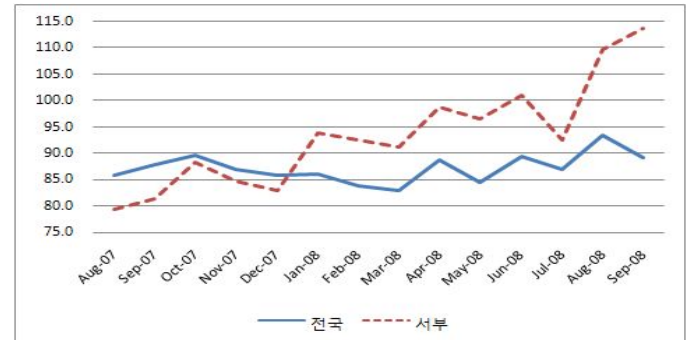
- 현 판매추세에서 재고소진에 소요되는 기간(Months supply)은 9.5개월로 2006년(6.5개월), 2007년(8.9개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2008년 상반기(10.2개월)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추세임.
- 주택차입 및 급매물이 전체 주택거래의 40%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주택 판매량의 하락세는 둔화되는 추세임. 특히 서부지역의 경우 3분기 기존주택 판매량이 전기대비 13.1%,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였음.
- 가격선행지수인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는 2008년 8월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한 데 이어 9월에도 1.6% 증가함.¹⁾

그림 1-4. 기존주택 판매 및 재고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그림 1-5. PHSI(Pending Home Sales Ind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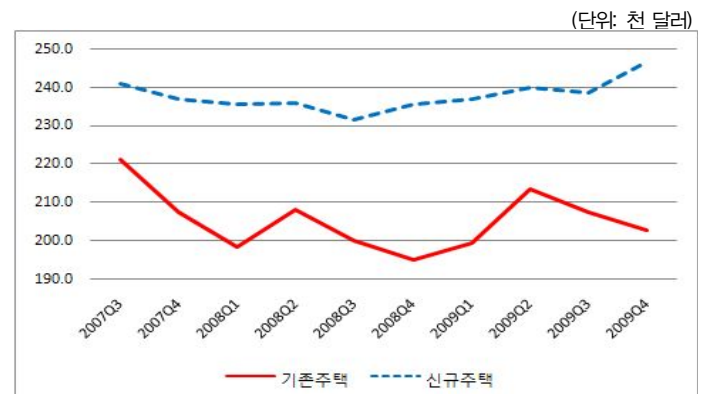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미국의 주택가격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고점(2006년 7월) 대비 30% 가량 하락하는 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주택차입 및 급매물 출하가 정점에 달하는 2009년 1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는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전미부동산협회(NAR)는 2009년 말 기준주택 및 신규주택 가격이 각각 전년대비 4.0%,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6. 주택가격 전망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II. 국제금융시장 전망

1. 외환시장

〈2009년 상반기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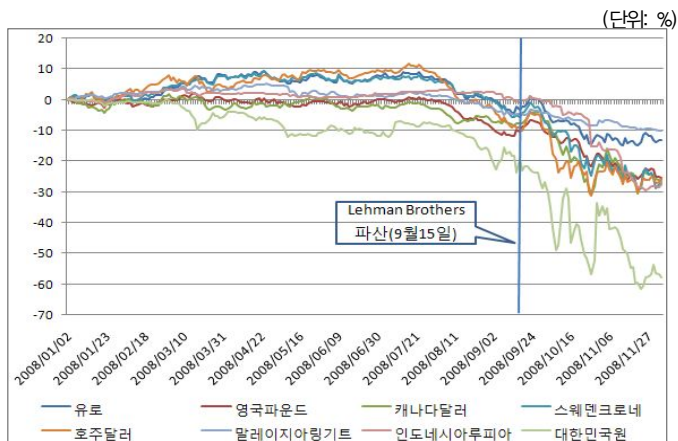
■ 2008년 하반기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 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실물경제 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금

1) PHSI(Pending Home Sales Index): 주택 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3개월 후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행지수로 사용됨.

용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되며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강세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의 경우 12월 4일 1477원을 기록하여 연초대비 60% 이상 가치절하되었으며 전 세계 통화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절하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9월 중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화대비 평가절하를 나타냄.

그림 II-1. 주요국의 미 달러 대비 평가 절하율



자료: 한국은행.

- 달러 인덱스²⁾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나 7월 중순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상승하여 최근 85~89 사이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II-2.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 2009년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한 강세요인과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약세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기적으

로는 강달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달러화 강세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실물경기 침체, 신흥국 부도위험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달러화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내년 하반기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 유출되었던 외국인자본이 신흥국으로 다시 유입되고 위험회피 현상이 완화되면 달러화 약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통화가 부재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위상은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1.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원/달러 추이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원/달러
2008년 1월	1.49	106.16	7.19	943.90
2월	1.52	105.35	7.11	939.00
3월	1.58	99.15	7.01	990.40
4월	1.56	103.94	6.98	1,002.60
5월	1.55	105.56	6.94	1,030.10
6월	1.58	106.27	6.86	1,046.00
7월	1.56	108.11	6.83	1,012.20
8월	1.47	109.51	6.83	1,089.00
9월	1.44	103.80	6.85	1,207.00
10월	1.29	98.88	6.83	1,291.00
11월	1.29	95.43	6.83	1,469.00

주: 각 기의 말일 값.
자료: 한국은행.

〈달러/유로는 1.15~1.25유로 사이를 유지할 전망〉

- 유로화는 하반기 유로지역의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및 유로지역의 금융위기 확산 우려 증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 대비 가치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지역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2%의 기록을 보이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³⁾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와 투자 및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의 국제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6개 주요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의 거래 환율을 가중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지수가 높아지면 달러의 강세를 나타냄.

3)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4%, 3분기 -0.5%를 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도 2분기 -0.4%, 3분기 -0.5%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스페인의 경우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였음.

- 유로지역의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2009년 상반기 달러/유로 환율은 1.15~1.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엔/달러는 상반기 90~95엔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손실이 미국과 EU 등 기타 선진국보다 작아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과 일본의 금리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엔화 가치절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은행(BOJ)은 지난 10월 31일 기준금리를 0.3%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하폭이 좁으며 또한 추가 인하 여지가 약하다는 점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성향 강화로 인해 당분간 엔화의 강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엔/달러 환율은 90~95엔 수준으로 전망됨.
- 하지만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엔고로 인한 일본경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엔화 가치절하도 예상되나 강세 추세를 반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위안/달러는 6.80~6.90위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상반기 중국 정책당국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을 하였으나, 하반기 물가하락과 수출증가율 및 소비증가율 감소 등 경기하강 우려로 인해 절상 폭을 낮출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8.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10월 4.0% 수준으로 하락하며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이 감소하였음.
- 인민은행은 경기하강 우려로 인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 내수 및 투자 증가율 감소 등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안화 절상속도 완화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25.7%에서 올해 1~10월 중 21.9%로 낮아졌으며 내년 수출도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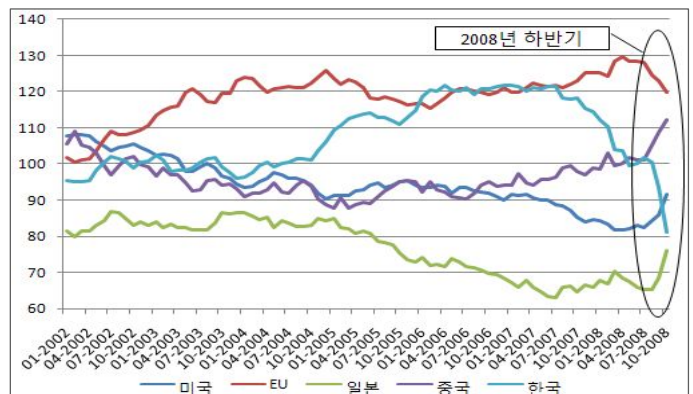
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안화 절상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상반기 위안/달러 환율은 6.80~6.90위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뒤 3년간 17% 이상 절상됐지만, 2008년 하반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음.

〈유로·원화 실질구매력 감소, 달러·엔화 실질구매력 증가〉

-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달러화의 경우 지난 4월 최저점인 81.66을 기록한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0월 91.38을 기록하였음.
- 지난 4월 대비하여 10월 엔화는 68.43에서 76.06으로, 위안화는 100.29에서 112.1로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유로화는 129.76에서 119.74로 하락하였음.
- 원화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1.4% 하락하여 81.25를 기록하였음.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하락폭은 다른 통화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3. 주요국 실질실효환율 추이



주: 2000년=100.
자료: BIS.

〈원/달러는 상반기 1200원 수준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자본 유출현상 악화, 한미 통화 스왑 및 정부의 유동성 공급대책 그리고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가능성,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인해 점차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상반기 1,200원, 하반기 1,000원 수준으로 전망됨.
- 원화 환율의 경우 다른 통화에 비해 2008년 중 평가절하 폭이 높

은 수준으로 오버슈팅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중 국내 주식 시장 외국인 순매도 현상 악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됨.

- FRB와의 300억불 통화스왑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잠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으로 미루어 달러화 수요가 심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년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된다면 환율은 최근 수준보다 가치절상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금리

가. 정책금리

- 정책금리의 경우 각국은 자국의 실물경기침체 지속 여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완화 여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내년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올해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내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순매도 증가 등으로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음.

표 II-2. 주요국 정책금리 동향

	2007년 12월	2008년 6월	2008년 12월1일	최근 변동일 (조정폭, bp)
미 국	4.25	2.00	1.00	08.10.29(-50)
브라질	11.25	12.25	13.75	08.9.10(+75)
유 로	4.00	4.00	3.25	08.11.6(-50)
영 국	5.50	5.00	3.00	08.11.6(-150)
헝가리	7.50	8.50	11.00	08.11.24(-50)
러시아	10.00	10.75	13.00	08.12.1(+100)
남아공	11.00	12.00	12.00	08. 6.12(+50)
스위스	2.75	2.75	1.00	08.11.20(-100)
한 국	5.00	5.00	4.00	08.11.7(-25)
일 본	0.50	0.50	0.30	08.10.31(-20)

중 국	7.47	7.47	5.50	08.11.26(-108)
인 도	7.75	6.00	7.50	08.11.1(-50)
필리핀	5.25	5.25	6.00	08.8.28(+25)
태 국	3.25	3.25	3.75	08.8.27(+25)
호 주	6.75	7.25	5.25	08.11.4(-75)

주: 각 시점의 말 값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2009년 상반기 미국 정책금리는 추가 인하 전망〉

- FRB는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금융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실물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자 2회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 FRB는 정책금리를 2007년 9월 이후 연속 7회에 걸쳐 총 3.25%p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8년 6~9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10월 초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우려가 증가하자 10월 2회에 걸쳐 정책금리를 1.0%로 인하하였음.
- Conference Board 10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 하락하여 99.6을 기록하며 경기침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S&P/Case-Shiller 20대 도시 9월 주택가격지수도 전년동월대비 17.4% 하락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됨.
- 향후 FRB는 국제금융위기 확산과 실물경제 침체 완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정책공조로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로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0.25~0.5%p 인하한 0.5~0.7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 원인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저금리정책 때문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1% 이하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오바마 실행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우선과제를 여기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음.

〈유로존 금융불안 확산과 경기침체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

- 하반기 ECB는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 4월 4.0%까지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가 10월 3.2%로 하락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

- ECB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유로지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0월 8일(4.25%→3.75%)과 11월 6일(3.75%→3.25%)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음.

■ ECB는 금융불안 확산에 따라 주식·부동산 등 유로지역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2.5~2.75%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 ECB 총재 Trichet는 지난 11월 6일 금리인하 후, “금융혼란으로 세계와 유로지역 경제의 경기침체가 오래갈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 압력 완화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음.

〈일본 실물경기침체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

- BOJ는 해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악화 리스크가 상존하고, 2001년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3%로 20bp 인하하였음.
- 10월 중 일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7% 감소한 6조 9,261억 엔을 기록하며 2001년 12월 이래 최고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6조 9,901억 엔으로 639억 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의 31.4보다 하락한 29.4를 기록하며 1982년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3분기 단기간수⁴⁾ 중 대기업/제조업지수⁵⁾는 4분기 연속 하락하여 -3을 기록하며 2003년 6월 이래 첫 마이너스를 보임에 따라 향후 일본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나타냄.
- 일본의 경우 경제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엔고와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하 여지는 크지 않아 기준금리를 0.05~0.1% 인하한 0.2~0.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BOJ 총재 Shirakawa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제로금리가 되

면, 투자자의 수익감소로 거래량이 감소되어 은행의 자금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수준까지는 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표 II-3. 주요국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국가	전망기관	2008년	2009년
미국	IMF	1.4	-0.7
	OECD	1.4	-0.9
유로지역	IMF	1.2	-0.5
	OECD	1.0	-0.6
일본	IMF	0.5	-0.2
	OECD	0.5	-0.1

자료: IMF, OECD

〈신흥국들은 자국 경기침체와 유동성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

- 대부분 신흥국의 경우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를 시행하였거나 동결하였음.
- 신흥국들의 경우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피해는 적었으나, 하반기 실물경제침체가 부각되기 시작하자 수출감소로 인해 성장률 하락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시행하였음.
- 하지만 선진국에 대한 자본의존도가 높은 몇몇 신흥국들의 경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해외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원유가격 하락과 수출둔화로 인한 자국 금융시장 불안 증가로 해외자본의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20일과 12월 1일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200bp 인상하였으며, 파키스탄도 11월 12일 기준금리를 200bp 인상하였음.
- 중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8개월간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9월 이후 기준금리를 4번에 걸쳐 인하하였으며 향후 경기추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됨.
- 11월 27일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6.66%에서 5.58%로 108bp 인하하였으며 1년 만기 예금금리의 경우도 3.6%에서 2.25%로 135bp 인하하여 97년 10월 이후 최대폭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였음.

4) 일본은행이 전국 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정책 운용에 참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임.

5) 현 경기상황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해 산출하며, 전 분기보다 하락하며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12.6%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며 올해 3분기 9.0%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증가를 하락과 중국 내 투자 및 소비 감소로 인해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금리 및 지급준비를 인하가 전망됨.

〈한국은 금융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증가와 소비·투자 및 수출 둔화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인하하였음.
- 지난 8월 7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콜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나, 이후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부족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5.25%에서 3.0%로 225bp 인하하였음.
- 국내 경기지표들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동성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금리를 2.5%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공조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가 전망됨.

나. 시장금리

〈단기기준금리인 리보금리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소폭하락 전망〉

- 미 달러 3개월 만기 리보금리의 경우, 9월 중 리먼 브라더스 부도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10월 중순 4.82% 수준까지 급등하였음. 그러나 미국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공조 및 미국 내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 의회 통과 이후 하락하여 12월 이후 2.1~2.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향후 리보금리는 FRB의 금리정책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 3개월 만기 리보금리의 경우, 10월 초 5.39%를 기록한 이후 10월과 11월 중 두 번에 걸친 ECB의 금리인하와 유럽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2월 이후 3.7~3.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엔 3개월 만기 리보금리의 경우, 상반기 중 BOJ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함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지난 10월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불안으로 인해 1.1%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BOJ가 10월 31일 정책금리를 인하하자 다시 이전 수준인 0.93~0.9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음.

그림 II-4. 주요국의 단기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하반기 장기국채 수익률은 하락 추세〉

- 2007년 하반기 주요국 장기금리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 잠시 보합세를 보였으나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 국채 10년 금리는 주요국 경기침체 심화와 신흥국 부도위험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11월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구제금융으로 공급한 자금들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유입됨에 따라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 장기금리는 7월 말 국제금융위기 재부상과 함께 하락 추세로 돌아섰으며, 10월 중 금융시장 불안이 유로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6월 16일 1.89%까지 상승하였던 일본의 장기금리는 부정적인 경기지표 발표와 수출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0월 중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잠시 상승하였으나,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며 12월 이후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I-5. 주요국의 10년 국채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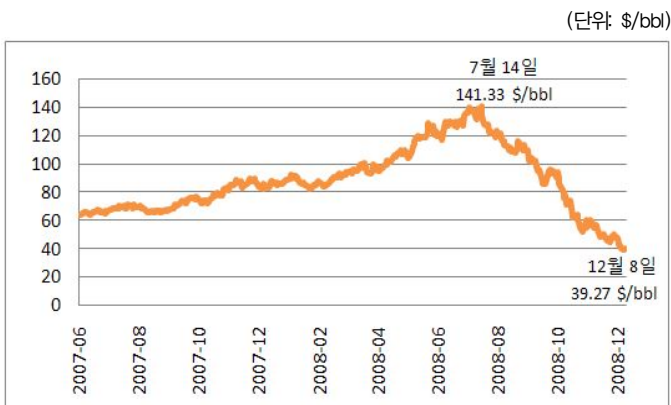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국제유가

가. 유가의 동향 및 전망

- 두바이 유가는 7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1.33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70% 가까이 급락하여 지난 12월 8일 100달러 이상 하락한 39.27달러를 기록함. 이는 2005년 2월 이후 최저치임.
- 7월 중순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이 국제유가의 기초 전환 변수로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석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의 하향 압력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유가상승에 편승했던 선물시장 투기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한편 유가불안을 초래하던 여름철 계절적 요인(허리케인, 드라이빙 시즌 등)이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크게 발발하지 않은 것이 2008년 하반기 유가 하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6. 두바이 유가



자료: Bloomberg.

■ 원유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어 국제유가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의견과 최근 국제유가의 낙폭이 과대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가상승을 견인할 뚜렷한 모멘텀 부재로 당분간 국제유가의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배럴당 50달러선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현 유가 약세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는바, 2009년 상반기까지는 세계적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OPEC의 감산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하반기는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규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적인 경제충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서서히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요컨대, 경기 회복이 완연하게 나타날 경우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 달러가치의 추세적 전환 여부는 2009년 국제유가의 등락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상존함.

나. 유가 결정요인 분석

■ 2009년 국제유가는 석유 수급상황과 달러가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 석유 수급 상황: 전 세계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위축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 소비국⁶⁾인 미국과 중국의 원유수요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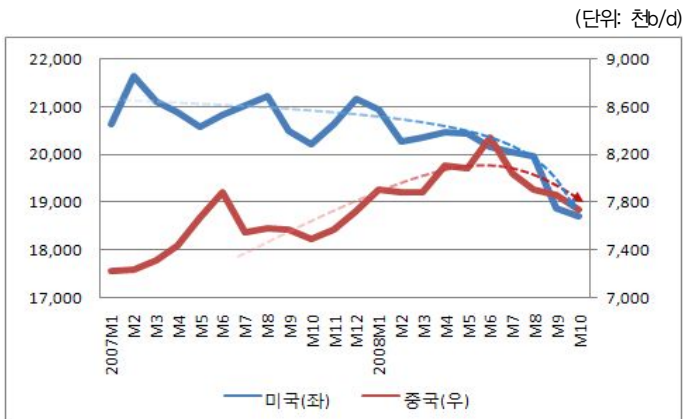
- 수급 편차면에서 본 그간의 유가 상승은 선진국의 수요 감소분을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수요 증가분이 상쇄하여 가격상

6) 전 세계 원유소비비는 미국이 1위, 중국 2위, 일본이 3위를 차지, 우리나라는 9위에 해당함.

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신흥시장국의 석유수요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신흥시장국들의 경제도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9년 석유수요 증가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그림 II-7. 미·중 석유수요 추이



자료: Oil Market Intelligence.

- 추가적인 유가 급락을 방어하고자 OPEC은 9월 이후 두 차례의 감산공조를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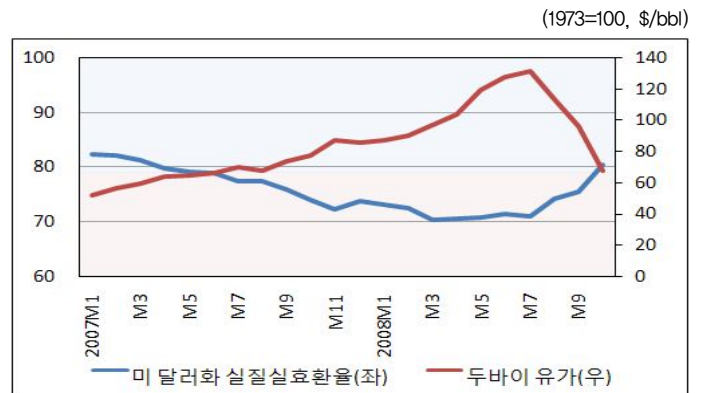
- 9월 87만b/d, 10월 150만b/d에 달하는 OPEC의 감산 결정 이후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떨어지는 하락세를 시현하자, 추가적인 감산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OPEC의 감산 결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2~3개월 후 공급차질로 인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초래될 수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유가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OPEC의 감산효과가 유가를 상승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총 1억 6,860만 배럴(약 24일 분)에 달하는 2단계 전략비축 계획은 시행되는 시점과 속도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달러가치: 강달러 지속 여부가 유가 결정

- 올해 7월 140달러에 달하던 국제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하락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인해 급락함.

- 국제유가와 달러 간 역의 상관관계는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9년에도 국제유가는 달러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임.

그림 II-8. 미국 실질유효환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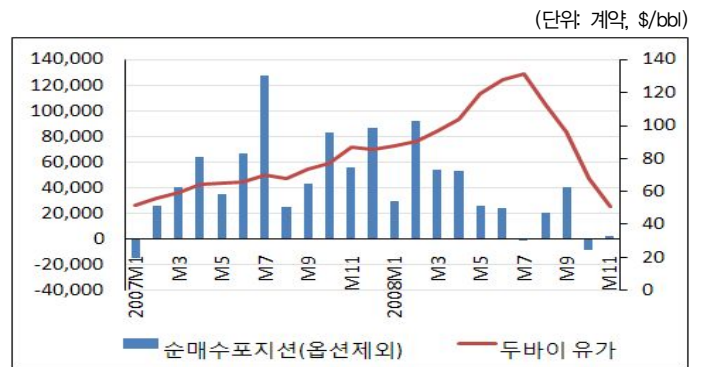
주: 무역 가중치 적용 환율.

자료: Federal Reserve Bank.

3) 투기성 자본: 이익을 실현한 투기자본 이탈 가속화

-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유시장은 투기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투기 버블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임.

그림 II-9. NYMEX 선물시장의 순매수포지션



주: 1계약=1,000배럴. 순매수포지션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기준, 두바이 유가는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

-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유가가 급락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품시장의 단기 투기자본들이 달러시장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석유시장 및 상품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한 투기자본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가의 급격한 폭락을 야기한 것으로 보임.
- 단,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거나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투기자본의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함.

4) 계절적·지정학적 요인

- 여름철 유가상승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허리케인과 같은 계절적 요인은 제거되었으나, 겨울철 난방유 사용 증대라는 새로운 유가변수가 등장함.
- 그러나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방유 수요 증대로 인한 상승압력이 경제침체로 인한 유가하락 압력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 중동지역 정세불안 요인이 유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온건으로 선회하여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즉, 중동지역의 테러, 정정불안 등으로 촉발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유가상승은 당분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다. 종합 평가

- 최근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하다 하반기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이르면 2009년 하반기에나 침체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 석유수요 및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 또한 유가상승을 견인할 요인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음.
- 다만, 달러가치의 약세 전환, 그에 따른 투기자본의 상품시장 유입 등으로 유가 하락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잠재돼 있음.

III. 국제금융질서 재편 전망

1.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방향

-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등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금융공조의 확산

-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기류는 선진국-신흥국 간의 통화스왑계약이 확대 추이를 보이고 지역적 통화협력과 금융협력 분위기가 강화된 것을 들 수 있음.
- 기존에 미국은 선진국 10개국을 중심으로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으나, 금년 10월 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신흥국 4개국(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과도 스왑라인을 확대 설정함.
- 국제금융시장의 개방화로 자본의 국제적 유출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파생상품과 금융주체들이 세계금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전파도 국경을 넘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선진국들만의 공조가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미 달러와의 통화스왑라인의 수요 증대는 달러 유동성 확보가 각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미 달러화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절대적 국제화폐로서의 지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 달러화와의 통화스왑은 단기적으로 달러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함.
-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 경제블록의 지역 금융협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아시아에서는 역내 위기대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확대 시행이 구체화될 예정임. 금년 5월 4일 제1차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800억 달러 공동펀드 조성에 합의하고, 추후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다자간 협약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이 외에 2010년 단일통화 출범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중동 6개국은 이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밟고 있음.

나. 신흥시장국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급기야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확산되자, 그간 미국이 누려온 금융

경제 패권이 다극화 체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서 신흥경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의 동조만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국제 사회 공감대가 발현된 결과임.

- 현재 G7 국가의 GDP 비중은 세계 GDP의 52%로 이를 신흥개도국을 포함한 G20로 확장할 경우에는 약 90%를 차지함. 아울러 내년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짐.

-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나 개방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나, 2008년 들어 미국 국채 5,850억 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조 9,056억 달러에 달해 이러한 막대한 금융자본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 영국, 브라질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다양한 시행계획의 이행을 주관하는 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국제금융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과 이해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 금융규제와 감독 체제의 개선

- 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위험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관련 금융 규제의 미흡함이 지적됨. 이에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기본 원칙⁷⁾ 중 「금융 감독·규제 개선」을 비중 있게 다룸.

-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금융 감독·규제 개선」안에는 국가별로 다른 금융상품의 회계 및 공시기준의 취약점을 대폭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사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재확립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및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각국은 감독기관 및 규제당국의 시장 감독·감시 기능을 제

고하고, 국제기준수립기구는 다양한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협력기로 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곧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20 시행계획 주관국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임.

라.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 IMF, 세계은행 등 현 브레튼우즈 체제의 지배구조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함.

- 또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는 현재 G7국가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홍콩 등 5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G20에 속한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 현 브레튼우즈 체제가 변화된 세계경제질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함.

- 이는 신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이며, 국제금융위기가 조속히 해결 기미를 보인다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통화스왑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과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또한 논의 중에 있는 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왑과 CMI의 확대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통화의 사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원화의 국제화는 시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 - 동아시아국가 - 외의 원화 무역결제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G20 합의문에 따른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기본원칙은, ① 투명성·책임성 강화, ② 금융 감독·규제의 개선, ③ 금융시장의 신뢰성(Integrity) 제고, ④ 국제협력 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등임.

■ 신흥시장국이 세계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그 역할 또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신흥경제권과 동아시아 경제권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

- G20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는 브라질·영국과 함께 후속조치의 시행을 주관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2010년 의장국에다 2011년에는 전임의장국으로써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사실상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2008년 말부터 2011년까지 G20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때 G20에 속한 다른 신흥경제국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흥경제국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흥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국제금융 감독·규제 강화를 위한 금융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음. 그러나 선진국 금융시장의 국제기준 도입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함.

-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제금융질서 재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흥시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함.

-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현안과 문제에 대한 조안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을 확충하고, 최고위급부터 신규전문가까지 다양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KIEP**

연구진:

* 국번: (02) 3460

오용협 실장 (yho@kiep.go.kr, Tel: 1022)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jhcho@kiep.go.kr, Tel: 1204)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1068)

송원호 연구위원 (whsong@kiep.go.kr, Tel: 1183)

이인구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1153)

오승환 연구원 (ohsh@kiep.go.kr, Tel: 1228)

김연실 연구원 (ykim@kiep.go.kr, Tel: 1187)